

# 봄날, 잊혀진 사랑의 기억을 묻다

### 승려의 회상 속 5·18 다룬 연극 '푸르른 날에' 개막

오월이다. 젊음을 상징하는 푸름의 계절 5월을 마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은 5.18이라는 가슴 아픈 현대사 때문일 것이다. 지나간 사랑과 정진이 마냥 아름답기만 했겠나만 여기에 더해진 시대의 비극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가슴 아픈 사연을 날고야 만다.

연극 '푸르른 날에'는 승려 여산이 회상하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 속 남녀의 사랑을 다룬 신파극이다. 5월 20일까지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되는 이 공연은 고서웅 연출에 김학선(여산 역) 정재은(정혜 역) 등이 출연한다.

기획을 맡은 남산예술센터 최여정 씨는 "2011년 5월 남산예술센터에서 초연된 '푸르른 날에'는 2011년 대한민국 주요 연극상을 휩쓸며 평단의 고른 호평을 얻었다"며 "5.18이라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21세기 신파극이라는 과감한 시도로 새롭게 조명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취지를 전했다.

연극은 차발이 보이는 암자에서 수행 중인 여산 스님(과거의 오민호)은 조카이자 딸인 윤화의 결혼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된다. 그의 기억은 30여 년 전 전남대를 다니던 약학 선생 시절로 돌아간다. 당시 민호는 전통찻집 아르바이트생인 윤정혜와 사랑에 빠져 있었고, 정혜의 동생 기준은 민호를 친형처럼 의지하고 있었다.

5월 18일 광주민주화 항쟁이 터지고, 그 소용돌이 속에 정혜는 민호를 떠나보낸다. 그렇게 도청을 사수하던 민호와 기준은 운명이 나누게 된다. 살아남기 위해 비겁한 자가 된 민호는 고문 후유증과 함께 정신이상을 겪고 삶을 포기한다. 자신을 들여다볼



여산 스님의 기억을 통해 5·18을 그려낸 연극 '푸르른 날에'가 5월 20일까지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된다. 사진은 지난해 상연된 공연 장면

수록 진흙탕이고 거부하고 싶은 생, 결국 민호는 속세의 자신을 버리고 불가에 귀의한다. 민호와 정혜 사이에 생긴 딸 윤화를 친형 진호가 거두었지만, 세월이 흘러 윤화의 결혼에 이르러서는 풀을 수 없는 속세의 인연에 애달파 한다.

남산예술센터 최여정 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사연들을 현재와 과거, 미래가 공존하는 구조로 그려낸 눈물과 감동이 있는 수준 높은 작품"이라며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선웅 씨가 각색, 연출을 맡아 새로운 형식으로 태어났다. 인간 사회 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살아 있는 대사와 가벼운 터치로 그려냈다"고 설명했다.

차별서 희곡상 제 3회 수상작으로 지난 해 첫무대에 올랐으며 2011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 및 연출상, 2011 올해의 연극 베스트3으로도 선정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춘철살인의 입담과 특유의 리듬감으로 쏟아지는 '고선웅식' 어법은 원작이 내재

### 사랑과 우정 모두 잃고 방향

### 구도의 길 통해 화해 모색

### 2011년 대한민국 연극상 수상작

### 평단과 대중에게 큰 '호응'

하고 있는 감동의 결은 더욱 살려내면서도 시대의 아픔을 이겨낸 청춘들의 에너지와 눈물, 그리고 웃음을 폭발시켰다.

고선웅 씨는 "5.18이라는 소재의 특수성 보다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했다. 두번째 공연인 만큼 신뢰는 더욱 디테일하게 또 통속적이게 연출하고자 했다"며 연출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처음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작품이 이렇게 재공연을 올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



연극속에서 5·18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한다. 완성도 있는 작품을 기대해도 좋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살도 사랑도 시간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사랑의 상처가 또 인간에 대한 죄의식도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현재를 괴롭힌다. 그 세월을 여여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삶도 사랑도 역사만큼 무거운 수밖에 없는 법. 5월, 온통 화려한 푸르름 속에 한변쯤은 그날을 그 시절을 돌이켜 역사의 무게를 잠시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 (02)758-2122 정혜숙 기자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용담 조관선사의 '한가히 살며 본 일[閑居卽事]

## 마음의 기멸을 돌이키다

山雨濛濛處 (산우몽몽처)  
喃喃鳥語時 (남남조어시)  
返觀心起滅 (반관심기멸)  
風動老松枝 (풍동노송지)

산비 보슬보슬 내리는 곳  
재잘재잘 새 우는 때  
마음 나고 사라짐 돌이켜보니  
바람이 노송가지 흔들네.

조선 용담조관(龍潭樵冠:1700-1762) 스님이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생들이 '불법문중에 법이 들어갔으니 큰 울림이 있겠다.'고 한 것처럼 [기신론]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 시는 이러한 스님의 세상바라보기이다.

몽몽과 남남의 의태 의성어로 스님이 살고 있는 곳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산 새가 울고 있는 계절임을 보여주었다.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계절을 읊은 것(即事)'이다. 여기서 철어의 자리배치에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보슬보슬 산비가 내리고 재잘재잘 새가 우는 때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왜 스님은 1구와 2구의 표현을 달리한 것일까? 단순히 평측(平仄)을 맞추기 위해서일까? 반복되는 들을 깨고자 해서일까? 이 물음이 곧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4구에서 그 해답을 찾아 볼 수 있겠다.

3구를 제외한 모든 구는 '산비'와 '새소리' 그리고 '노송가지'인 즉사(即事)를 읊었다. 기구에서는 산비가 내리는 모양을 형용하였다. 산비가 내리고 있는 사실을 우선시하였다. 승구에서는

재잘거림이 우선이다. 새가 우는 것에 스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남 거리는 소리에 있는 것이다. 기구는 경(景)에, 승구는 정(情)에 중점을 둔 것이다. 결국에서는 바람이 높은 가지를 흔들다고 하였다. 정경교착의 상태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3구에서 '마음의 기멸을 돌이켜 본다' 하였다. 마음을 노송에 비유한 것이요, 기멸은 흔들리는 노송의 가지이다. 풍동은(風動) 반연이다. 스님은 흔들리는 것이 바람인지 흔들리는 것이 노송 가지인지 돌이켜 비추어보고 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인지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인지를 반관(返觀)하는 것이다. 반관을 통하여 정경교착을 주객미분의 도리로 환원시켰다. 이러하니 스님은 시처(時處)에서 한가롭고 자유로울 수 밖에.

원법 스님(운문사 종장·조계종 교수이사리)



## '선우용여 가피이야기' 재가불자 초대

### 불교TV 불개편, 토크 법문 등 강화

4월 봄 개편에 들어간 불교TV가 '선우용여의 가피이야기' 생방송 '명의' 법문 프로그램 등을 확대편성 시청자들을 찾아가겠다.

'선우용여의 가피이야기'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재가불자들을 초대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프로그램이다. 불교TV 전략기획실 이진경 씨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이야기를 통해 재가불자들의 신행 모습과 가피의 영험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불자 연예인 선우용여가 진행을 맡은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일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된다.

법문도 강화된다. 전국교 고승대덕 스님들을 초청하는 '불교 TV 무상사 법문'



'...가피이야기' MC인 선우용여씨 진행모습

은 오전 7시 30분, 오후 11시에 전파를 탄다. 이밖에도 '다시 듣는 법문'을 통해 구산 해안 경봉 전강 정화 스님 등 고승들의 주옥같은 법문을 다시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여기에 중진급 원로 스님인 고우 해국 종범 혜거 설우 스님의 경전강의도 마련된다.

## "다향의 울림 차문화 축제 풍성"

### 대흥사 초의문화제 ·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등

봄을 맞아 전국의 차인들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전남 해남의 대흥사가 주최하는 초의문화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보성다향제, 대구세계차문화축제 등 풍성한 차행사가 펼쳐진다.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향의 울림 차문화 축제를 한 자리에 모았다.

초의문화제는 전남 해남 대흥사가 주최하는 대표적 차문화축제 4월 27일~29일 대흥사 일대에서 열린다. 우리 차의 부흥을 이끌었던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받

들고 선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초의문화제는 92년 시작 이래 올해로 21째를 맞았다. 주요 행사로는 초의문화제 기념식, 초의선사 헌공다례 등이 이어진다. 또한 다시 경연대회, 차학술논문공모전, 녹차만들기 체험, 초의상 수상자 초청 간담회 등이 열린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하동야생차문화축제는 5월 2일~ 6일 경남하동 일대에서 펼쳐진다. 프로그램으로는 대한민국 차인한



2011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차인대회 장면

마당, 심점장 달빛 차회, 차수연회, 녹차 세족식, 차시배지 한다 체험 등이 펼쳐진다. 보성차밭 일대에서 펼쳐지는 '38회 보성다

향제'는 5월 16일~ 20일 보성 한국차소리 문화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다례시연, 찻사발 만들기, 차 만들기과 찻잎 따기 등이 펼쳐진다.

대구세계차문화축제는 5월 17일~20일 대구엑스포에서 열린다. 세계 차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국제차학술대회, 외국인 차예절겨루기 대회, 대한민국 차인대회, 차인가요제 등이 열린다. 이밖에도 찻사발의 어제와 오늘을 볼 수 있는 문경찻사발축제는 4월 28일~5월 6일 문경세계 일대에서 열린다. 찻사발국제교류전, 도예명품특별전, 국제찻사발발모전, 선조도공추모제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케이 마하연투어

# 성지순례

## 출발 확정 상품

- 미얀마 성지순례
  - 일정 : 양곤 바간 해호 6일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해호 7일
  - 출발일 : 5월30일, 6월 1일, 6월 8일, 6월14일, 6월21일, 6월23일
  - 요금문의
- \*전 일정 특급호텔(세도나, 프레저, 후핀) 가이드 기사 팀, 호스카 포함
-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 6월 1일, 6월 9일
  -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6월23일
  - 요금문의

◎ 인도 성지순례	9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7일	요금문의
◎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요금문의
◎ 백두산 I 연결	5,6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 윤달 삼사순례 무료점심공양

전국에서 불심이 가장 돈독한 부산의 관음제일기도도량 칠보사가 전국대덕 큰스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칠보사는 천마산 중턱의 조선시대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는 해맞이 기도도량입니다. 그리고 5~10분거리에는 부산항, 자갈치시장, 송도해수욕장이 있고 또한 방생할 수 있는 태종대 자갈마당과 다대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법당에 모셔져있는 조선시대 관세음보살상

칠보사에 오셔서 무료로 점심공양과 철야정진기도를 하시면 대덕큰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산승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한점씩 무료 법보시합니다.

※속소 관계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

부산서 저구 남부민1동 93번지 ☎051)244-2040

### 대한불교조계종 천마산 칠보사

주지 일허 합장

바로보인 불법

## 바른 불자가 됩시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불법 이야기

신간! 바른 불자가 됩시다

요즘 불자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 031-534-3373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